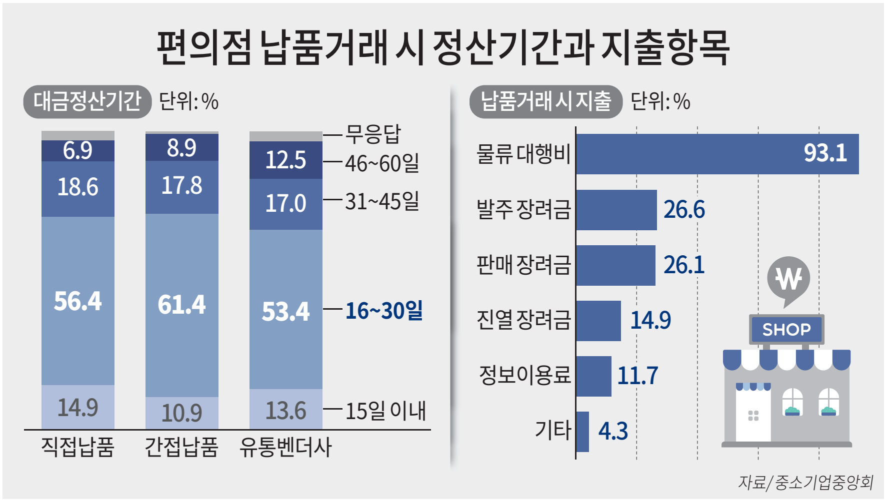
편의점 납품 中企 2곳 중 1곳, 대금 정산기간 16~30일 소요

중기중앙회, 369개사 대상 조사
10곳 중 3곳 수령기간 '한달 이상'
매출액의 11% '물류 대행비' 지급
직접 납품업체 93% "물류비 부담"



편의점에 거래하는 중소기업 2곳 중 1곳 이상은 납품대금을 받는 기간이 적게는 16일에서 많게는 30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3곳 가량은 납품대금 수령기간이 이보다 긴 한 달 이상 소요됐다.

이는 편의점에 직접 납품하거나 유통벤더사를 통한 간접 납품 모두 마찬가지였다.

또 납품 중소기업들은 물류대행비로 편의점 매출액 대비 평균 10%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류대행비'란 거점물류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개별 편의점까지 배송을 위해 납품기업이 편의점 본사에 내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유통벤더 369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편의점 납품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1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납품 후 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묻는 질문에 직접 납품(56.4%), 간접 납품(61.4%), 유통벤더사(53.4%) 모두 '16~30일'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판매대금을 '30일 지나서 받는다'는 답변도 직접 납품(25.5%), 간접 납품(26.7%), 유통벤더사(29.5%) 모두 25%를 넘었다.

직접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납품 거래 비용 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93.1%의 업체가 물류대행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물류대행비가 매출액 대비 평균 11.3%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용부담은 ▲발주장려금(26.6%) ▲판매(성과)장려금(26.1%) ▲진열장려금(14.9%) ▲정보이용료(11.7%) 등의 순으로 부담이 컸다.

편의점에 납품하는 기업들의 평균 마진율은 직접 납품의 경우 43.2%, 유통벤더사를 통한 납품은 46.6%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납품 거래 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직접 납품업체의 76.6%, 유통벤더사를 통한 간접 납품업체의 68.3%가 '비용 부담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납품업체가 처음 편의점과 거래조건 협상 시 납품업체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해선 '편의점과 납품업체 양측의 중간 수준에서 합의됐다'는 응답이 직접 납품업체(79.8%), 유통벤더사(61.4%)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체 비율은 직접 납품업체 4.8%, 간접 납품업체 5.0%, 유통벤더사 3.4%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개별 회사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4대 편의점 매출액은 총 24조2943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 순위로는 GS25(8조2457억원), CU(8조1317억원), 세븐일레븐(5조6918억원), 이마트24(2조2251억원) 순이었다.

또 2022년 말 기준 편의점 가맹점 수는 총 5만1681개로 집계된 가운데 CU(1만6615개), GS25(1만6337개), 세븐일레븐(1만2553개), 이마트24(6176개) 순으로 많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2021년부터 유통 산업에서 편의점 매출 비중이 대형마트를 넘어 지속 증가해 납품업체의 거래 실태를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편의점 납품거래 실태조사를 지속해 편의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총 상금 15억… 'K-스타트업' 왕중왕전 돌입

중기부, 총 210개팀 통합본선 진출
29일부터 왕중왕전 진출 30팀 압축
12월 최종 20팀 선발 상장·상금 시상

총 15억원의 상금을 놓고 펼쳐지는 국내 최고 스타트업 경연대회 본선이 본격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전! K-스타트업 2024' 11개 예선리그가 마무리됨에 따라 14일 서울 마포에 있는 서울창업허브에서 통합본선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최종 20팀을 선발하기 위한 통합본선-왕중왕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를 비롯한 10개 부처에서 지난 1월 29일 통합공고를 통해 예선리그별로 (예비)창업자를 모집한 결과 총 6238팀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210개팀이 평균 3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이번 통합본선 무대를 밟았다.

이들 210개 팀은 이달 29일부터 4일 간의 평가를 통해 왕중왕전 진출 30팀으로 압축되고, 12월 왕중왕전에서 최종 20팀을 선발해 대통령상 등 상장 20점과 상금을 시상한다.

'도전! K-스타트업'은 2016년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해 현재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 유망 K-스타트업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작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유니컨은 커넥터·케이블을 대체하는 초고속·초소형 반도체 커넥티비티(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개발해 퀄컴, 로젠버거 등 글로벌 기업과 PoC(Proof of Concept)를 진행했고, 14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또 우수상을 받은 네이션에이는 생성형 AI 기반 3D·4D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SaaS)로 2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받고 2개 부문에서 CES2024 혁신상을 수상했다.

또다른 우수상 수상기업인 토트는 전기차 폐배터리 진단과 해체를 위한 인공지능 로봇 완전 무인 자동화 솔루션으로 CES2024 혁신상을 수상했다.

통합본선 개막행사에 참석한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번에 외국인 유학생 신청자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창업 분위기 확산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관계부처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왕중왕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휴롬, 홍콩서 이지·퓨어 등 착즙기 홍보

'홍콩 추계 전자박람회' 참가

휴롬이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강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제44회 홍콩 추계 전자박람회(HKTDC Hong Kong Electronics Fair 2024-Autumn Edition)'에 참가해 현지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섰다.

14일 휴롬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열린 홍콩 춘계 전자박람회에 이어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추계 박람회에도 참가하게 됐다.

휴롬은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신제품 착즙기 H410을 비롯한 H400, H320, H310 등 다양한 라인업의 착즙기를 선보였다.

특히 멀티스크루를 적용해 사용 편의성을 강조한 이지(easy) 라인업의 착즙기와 착즙망으로 더 맑은 주스를 착즙할 수 있는 퓨어(pure) 라인업의 착즙기로 구분해 제품의 특장점을 소개하고, 휴롬의 저속착즙기술을 구현하는 핵심 부품인 스크루를 발전 과정에 따라 전시해 휴롬의 기술력은 물론 브랜드 히스토리를 알리는데 집중했다.

휴롬이 '홍콩 추계 전자박람회'에서 마련한 부스에서 방문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휴롬

또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착즙 시연을 선보여 휴롬의 건강 가치를 전파했다. 건강주스로 인기를 얻고 있는 CCA(당근, 양배추, 사과)주스, ABC(사과, 비트, 당근)주스 등을 시연해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신선한 착즙주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지역 우수 중소기업 발굴 나섰다

찾아가는 도약 프로그램 현장설명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방 중기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14일 중진공에 따르면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혁신역량과 성장의지를 갖춘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해 민관이 협업해 미래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이 중견(후보)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추진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 스케일업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디렉팅 ▲스케일업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오픈바우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을 위한 네트워킹 ▲성공적인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정책패키지 등으로 관련 프로그램 선정기업에게 3년 간 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중진공은 지난 11일 실시한 경기도 수원에서 경기서부·남부·동부권역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15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인천, 강원,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16개 도시에서 지역의 핵심 산업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지방 중기청과 합동 설명회를 추진한다.

사업설명회에선 제조 중소기업 등 지역 유망기업과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도약(Jump-up)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 소개 및 지원절차를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하고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후보특구 사업은 ▲경북-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배터리·모터·감속기·인버터) 순환이용 ▲광주-첨단재생의료 ▲대전-우주항공(우주위성 및 우주용 부품) ▲울산-암모니아 벙커링 ▲전남-E-모빌리티 특구(소형 모빌리티 및 PM 등) ▲전북-기능성식품 ▲제주-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LOHC를 이용한 수소저장) 시스템 등이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 '안방민심 공략' 보일러CF 선봬

지진희 출연 '품질에 대한 믿음' 주제

귀뚜라미가 3세대 카본매트 CF에 이어 보일러 브랜드 CF를 새롭게 선보이며 동절기 안방 민심 공략에 나선다.

귀뚜라미는 배우 지진희와 함께 '품질에 대한 믿음'을 주제로 보일러 브랜드 신규 CF 캠페인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광고는 천재지변, 안전사고, 환경오염, 난방요금 등 소비자의 다양한 고민과 걱정으로부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묵묵히 지켜 온 귀뚜라미보일러의 품질·안전 철학을 영상에 담아냈다.

'귀뚜라미는 지키겠습니다'라는 배우 지진희의 대사와 함께 시작되는 광고는 지진, 가스누출, 환경오염, 가스비 걱정으로부터 고객을 지키겠다는 귀뚜라미보일러의 약속으로 이어진다. 끝으로 '품질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대사를 통해 지난 50년간 업계를 선도해온 보일러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를 드러내며 마무리한다.

귀뚜라미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저녹스 일반 보일러'로 100% 친환경보일러 제품 라인업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효율과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검증된 고품질 친환경보일러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김승호 기자